

덕수궁(경운궁)의 혼재된 장소성에 관한 연구

- 대한제국시기 이후를 중심으로 -

한소영* ·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Remixed Sense of Place in Deoksugung(Kyungungung)

- Since After the Daehan Empire Era' -

Han, So-Young* · Zoh, Kyung-Jin**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dealing with Deoksugung around the founding of the Daehan Empire Era. It will look closely into how locational contexts and sense of place have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subject's view point and the interpretation of text community until Deoksugung is changed into citizen-oriented public place vested with the meaning of public park. In conclusion, Deoksugung was a place for suffering and sorrows, but also it was a place for ceaseless attempt to pursue of the recovery of past without losing hope. As in the case of uprising war lik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mjin Yeran) or Cheong Japan War, Deoksugung was an importantly historical place where autocrat temporarily stayed to stand up for the war and moreover, it was an imperial palace where the ambivalent sensibility between suffering and hope are intermingled in the very first Korean Empire in history. Unlike Kyeongbokgung and Changdeokgung, the current Deoksugung has changed its boundary from time to time since Japanese invasion of Korea up to the present. Deoksugung has evolved the present situation as endlessly changing its boundary by interacting with the neighbor of Kyungungung. The more complicated sense of place is coexisted in the features of the Deoksugung. Therefore, current hot topics concerning restoration project of Deoksugung is much more difficult than of other palaces. This issues should be carefully dealt with beyond the political interests.

Key Words : Sense of Place, Place Identity, Deoksugung, Kyungungung

국문초록

본 연구는 덕수궁을 대한제국시기 전후를 기점으로 현재의 시민 중심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원'의 성격을 띠는 장소로 변화하기까지 주체의 변화와 장소독해자의 해석에 따라 그 장소적 맥락과 장소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시도이다. 결론적으로 덕수궁은 수난과 비애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출구를 모색한 재기의 장소였다. 덕수궁은 임진왜란이나 청일전쟁과 같은 조선 왕조의 변란 때마다 군주가 잠시 이곳에 머물며 난리를 극복한 중요한 역사의 무대였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한국사상 최초의 황제국인 대한제국의 시련과 희망이 교차한 황궁이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덕수궁은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달리 영역 자체가 임진왜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 변해왔고 덕수궁 주변과의 끊임없이 영역이 변하면서 시대적 상황을 잘

* Corresponding Author : Han, So-young,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Phone : +82-2-880-5643, Email : soyounghann@gmail.com

표현해 주고 있는 현재의 덕수궁의 외관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장소성이 혼재된 곳이다. 때문에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한 덕수궁 복원 사업은 다른 어떤 궁들의 복원보다도 어려운 작업이며 정치적 이권을 넘어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주제어 : 장소성, 장소정체성, 덕수궁, 경운궁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서울에서 덕수궁 돌담길과 미술관으로 친숙한 덕수궁(경운궁)은 시민들에게 궁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공원으로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한 곳이다. 이는 일제시기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현재는 1904년 화재 이후 재건된 덕수궁 부지의 약 1/3만 남아 궁으로서의 원형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물리적인 조건을 그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정궁으로 역할을 했던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과 달리 왕들의 임시거처 및 인 행궁으로서 기능했으며, 10년 정도라는 아주 짧은 기간 대한제국 시기의 왕궁이었던 역사적 맥락으로 인해 다른 궁들에 비해 덕수궁은 학계 내에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아 궁으로서 상징성이 비교적 약한 탓도 있다. 최근 들어서야 시민들 사이에서 덕수궁의 상징적 의미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있다. 예컨대 안창모는 우리가 덕수궁의 현대사적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은 덕수궁이 지난 100여 년 전에 겪었던 수난에 매우 유사한 상황 속에 있다고 이야기 한다. 구 덕수궁 영역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사 간 경기여고 자리에 미국이 대사관 직원 숙소를 짓겠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시민들이 덕수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시민들의 뜻이 모여 덕수궁의 궁역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안창모, 2009: 16-17).

학자들 사이에서의 덕수궁 정체성에 대한 논의 역시 다양하게 갈린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현은 경운궁에 화재가 일어났던 1904년을 기점으로 “약 100년 만에 이전의 영역보다 훨씬 축소되어 도심내 공원의 역할을 하는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다(김종현, 2004: 1).”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창모는 한 나라의 궁궐이 시민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고 그 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은 지탄받을 일은 아니지만, 덕수궁이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지어졌고, 그곳에서 고종황제가 근대 국가 건설을 세우기 위해 절치부심했다는 사실보다 해방 후에 도심 공원과 미술관 용도로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안창모, 2009: 255).

최근 덕수궁 내에서 궁중 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됐던 석조전의 원형 복원공사가 2009년 말부터 진행되고 있다. 원래 덕수

궁의 복원은 2001년 미 대사관 이전 및 신축 부지로 옛 선원전 영역이 검토되면서 덕수궁의 영역과 복원에 대한 논의가 불어졌다¹⁾. 김종현은 덕수궁 즉 덕수궁이 단지 왕이 거처했던 궁궐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논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덕수궁의 원형 자체가 불분명하고, 또 그러한 원형 복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살펴볼 때 그럴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 한다(김종현, 2004: 116). 차라리 현재의 것과는 무관한 과거의 것으로 여겨지는 보통의 궁들과 다르게 궁의 형태로서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덕수궁이 ‘공원적 특성’을 지님으로써 현대 시민들과 호흡하는 장소로 변화했다는 데서 오히려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이영일, 2007: 2). 이와 유사하게 최근에는 원형으로 복원된 덕수궁 돌담길을 놓고서도 덕수궁 돌담을 허물어 서울광장 일곱 배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덕수궁의 정치적, 상징적 의미보다는 현재 덕수궁의 공원적 성격을 강조하는 태도이다²⁾.

그렇다면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 사이에 권력의 중심지에서 시민 중심의 장소로 변화하기까지 덕수궁의 장소의 의미는 어떻게 재구성되어 온 것일까? 본 연구는 덕수궁을 대한제국시기 전후를 기점으로 현재의 시민 중심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원’의 성격을 띠는 장소로 변화하기까지 사용 주체의 변화와 그에 따른 보편적인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관련하여 그 장소적 맥락과 장소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통시적인 관점에서 덕수궁 자체의 물리적 형태가 대한제국시기를 기점으로 여러 정치·사회·제도적 변화와 함께 현재까지 변화해 왔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덕수궁의 권력 및 공간 주체의 변화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장소정체성과 그 상징적 의미가 어떻게 재구성되어 왔는지를 해석 및 정리한다. 셋째, 이를 통해 현재 덕수궁에 대한 장소적 함의와 더불어,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형식의 궁궐로서 덕수궁이 나아갈 길을 살펴본다.

2. 관련 연구 동향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궁궐에 대한 관심은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등에 편중되어 왔다. 서울에 5대 궁궐에 속해 있었던 경희궁은 그 흔적이 거의 없어졌으며, 경운궁은 축소되고 변모되

어 옛 모습을 잃었고, 그 이름마저 덕수궁으로 바뀌어 하나의 별궁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순일, 1989: 8). 이영일은 궁궐과 관련한 기존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연구 자료와 연구의 접근 방법을 기준으로 6가지 정도로 분류 및 정리한다³⁾. 크게 문헌사료를 바탕으로 연혁과 변천과정을 다루는 연구와 전통 공간의 계획원리로 작용하는 사상을 토대로 궁궐의 입지를 해석하거나 배치특성과의 관련성을 해석한 연구 등으로 구분한다. 특히 사상적 측면에서 궁궐의 조성원리와 물리적 측면에서 전각의 배치 또는 공간구성요소에 관하여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고 밝혔다(이영일, 2007: 12-13). 물론 이러한 연구들의 성과는 궁궐공간에 대한 시대사상이나 사유체계를 밝히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궁궐공간이 현재의 것과는 무관한 과거에 있었음직한 어떤 것으로 바라보게 하는 시각을 갖게 한다(이영일, 2007: 2, 송희은, 2007: 6).

이는 상대적으로 연구의 축적이 미약한 덕수궁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오휘영은 덕수궁의 궁원을 중심으로 사적 공원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디테일한 자료와 함께 상세히 덕수궁을 다루었으나(오휘영, 1982), 주로 식재 위주의 분석이 된 탓에 통시적 관점에서 덕수궁의 조망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다른 궁들에 비해 덕수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할 뿐더러, 덕수궁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술사학과 건축학, 조경학, 역사학 분야에서 덕수궁 전각들의 외형, 각 전각들의 초점을 맞춘 것들이 대부분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서울의 근 현대사를 다루면서 덕수궁을 새롭게 재조명해 보는 저서들이 출판되었는데, 덕수궁을 중심으로 다룬 단행본으로는 정동과 덕수궁 일대의 근·현대화 시기 변천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김정동의 저서(김정동, 2004)와 보다 정동 중심으로 다뤄진 박경룡의 연구(박경룡, 2005)가 있다. 이들 저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저서들에서 덕수궁은 정동의 역사와 함께 다뤄지는데, 이는 정동 내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어온 덕수궁의 경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김중헌, 2004: 116). 최근 저술된 안창모의 연구(안창모, 2009)는 체계적인 자료로 덕수궁과 대한문 앞 광장, 즉 현재의 시청앞 광장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인 변천과정을 저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 모두 대부분이 광복 이전의 덕수궁을 내부 건물 위주로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물리적 형태 변화에 있어 광복 이후의 변천사도 대한제국 시절 및 일제강점기와 비슷한 비중을 다루고, 시기별 권력자들의 의도와 함께 이용자들이 받아들여진 덕수궁의 이미지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 장소정체성을 해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이를 둔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장소성 분석과 관련하여 연구의 틀은 에드워드 렐프(E. Relph)가 사용한 장소정체성 구성 요소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는 장

소의 정체성을 장소와 장소 경험의 주체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고유의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장소감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물리적 환경인 경관, 인간의 활동(경험), 의미 있는 관계들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개인의 의도와 개성,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장소는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를 공유하면서 경험을 함께하고 관련을 맺음으로써 창조된다. 여기서 물리적 환경은 표면적이고 관찰 가능한 인간 활동의 배경이 되고, 그 활동들에 의해 보완되며 다시 활동에 영향을 준다. 장소의 의미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 활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의도와 경험을 속성으로 한다. 의미는 변화할 수 있으며,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이들 세 요소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장소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한다(E. Relph, 2002: 105-141).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으로는 덕수궁의 내부구조 및 경관의 변화 양상으로 보고 사람들의 활동은 덕수궁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권력을 가진 주체들의 활동과 실제 덕수궁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행태로, 그리고 장소의 의미는 권력의 주체들이 부여한 것과 실제 경운궁의 장소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덕수궁에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으로 정의한다. 더불어 덕수궁의 역사는 대한제국시대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는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그 규모가 서울의 다른 궁궐에 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한 탓이다(김순일, 1989: 14). 본 연구는 대한제국시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덕수궁을 중점으로 다루도록 한다.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조선조 경운궁의 공간구조 분석은 문헌사료와 기존 연구사를 토대로 하여 분석하도록 하고, 일제강점기 궁궐 공간의 변형과 해방 이후 궁궐의 기능 및 역할 변화에 대한 분석은 기존 구축된 연구 자료가 미비한 탓에 몇 권의 덕수궁을 주제로 다룬 단행본과 기타 여러 단행본에 실린 단편적인 덕수궁에 대한 서술, 궁궐 복원 관련 보고서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사람들의 활동과 의미는 서로 보완적인 요소이므로 묶어서 살펴 볼 것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즉 경관을 주도적으로 변형시킨 주체의 활동과 실제 이용했던 사람들의 활동을 모두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의 활동은 던컨(Duncan)이 이야기한 권력주체자, 비슷한 의미에서 권력주체자와 장소독해자로 나누고, 시기별 의미를 도출한 후 장소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제임스 던컨(Duncan)은 전통 지리학자들이 문화를 초유기체적으로 보았던 이론이 문화와 공간의 상호작용, 인간 집단의 영향력 등을 간과하였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Duncan 1980: 181-198). 관련하여 던컨 부부는 한 장소성에 대해 어떤 장소독해자의 해석이 힘을 한 가지 해석만 남고 다른 해석이 배제된 장소를 '자연화된(naturalized) 장소'라고 하고 시간이 흘러 그 장소성을 다르게 해석하는 장소독해자의 주장이 힘을 얻으면 '탈자연화된(denaturalized) 장소'라고 한다(J. Dauncon and N. Duncon, 1988: 119-

125). 결국 하나의 장소가 어떤 '장소성'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장소독해자간의 치열한 대결의 장으로 볼 수 있다(송희은, 2007: 8). 또한 장소에 투영된 권력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즉, 실세계의 경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권력주체이지만 장소독해자의 해석에 따라 장소정체성을 부여받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다른 해석을 하는 장소독해자가 등장함에 따라 결국 장소정체성은 변화한다.

II. 덕수궁 장소정체성의 변화과정

1. 왕조의 상징영역에서 식민지 근대기의 혼성영역으로

1) 대한제국 형성과 함께한 권력의 재구축 및 확장의 무대: 회복된 정치적 장의 재건

경운궁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가 일본군의 파죽지세에 밀려 한양을 내주었다가 다시 돌아 왔을 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불에 타 마땅하게 거처할 곳이 없어 월산대군의 사저를 행궁으로 정한 곳이다. 선조를 이은 광해군이 경운궁에서 즉위하였고, 1609년 광해군 1년에 창덕궁이 완성됨에 따라 경운궁은 정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안창모, 2009: 49-50). 이후 약 200여 년간 비어 있다가 1897년 고종의 환궁을 계기로 다시 왕이 임어하는 정식 궁궐로 된다. 1986년 2월 고종이 아관 파천하였다가 1년 만에 환궁하면서 환궁할 궁궐로서 기존의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아닌 경운궁을 중건한 것이다(홍순민, 2000: 184).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 경운궁을 정궁으로 삼아 대한제국을 선포하여 자주적 국가를 삼았던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운궁 입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외국 공사관 부지들이 점유해 있던 상태였기에 경운궁은 각 공사관 사이사이에 짓는 형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공사관과의 외교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본의 외교적 억압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외적으로 근대적 정치이념을 지향했던 대한제국이지만 이전의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단절된 것이 아닌 유교국가로서의 정통성을 중시하였기에 고종 역시 왕권의 정통성을 선조 대에서 찾으려 했다. 경운궁은 선조가 조선 왕조 최대의 전란이었던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인조가 인조반정으로 즉위하면서 왕조 부흥의 기틀을 마련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외세 침탈 속에서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해 제도약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던 고종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김종현, 2004: 112).

1897년 고종은 10월 12일 원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하였으며, 1896년 7월부터 신궁의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다. 1897년 이후 경운궁은 한성부의 중심이 된다. 황실의 문양은 전주 이씨를 상징하는 오얏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김정동, 2004: 68). 한 외



a: 석조기단에 증층으로 된 화재 전의 중화전 정면 (자료: 중화전영건도감의례)
b: 1904년 화재 발생 전의 중화전과 구형현 화재 전의 중화전 정면 (자료: 도변천예의, 1930: 63)

그림 1. 화재전의 중화전 모습

국인은 신궁 세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지금 정동 궁 안 한 곳에 부산하게 짓고 있는 신궁도 손탁 여사의 의견을 수렴한 건축 공사로 러시아 공사관보다 더 화려하게 지을 계획이다."(김영자, 1997: 300). 고종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운궁에는 즉조당과 석어당 그리고 선원전 및 부속 전각이 남아 있었기에 고종이 경운궁으로 옮긴 뒤 처음에는 즉조당을 법전의 대응으로 사용하였다. 당시는 국가의 중흥을 도모하던 때이기에 황실의 존엄성과 국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팽배하였을 것이며, 고종은 궁궐의 가장 으뜸 되는 건물로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례나 행사가 열리는 공간인 법전으로서 즉조당에 만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뭄 때문에 토목 공사를 중지했던 고종은 법전의 신축을 위한 영건도감의 설치를 명하고, 1901년 10월 11일 공사를 시작하여 1902년 9월 13일에 이르러 경복궁의 근정전, 창경궁의 인정전에 견줄 만한 중층의 법적인 중화전의 상량을 마치게 된다(김순일, 1999: 36-37). 중화전영건도감의례에 실린 2층으로 지어진 중화전의 면면과 화재 전의 중화전 사진을 살펴보면 다른 궁궐 법전의 위엄에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1904년 화재가 일어나기 전 경운궁은 절정기에 달했는데, 중층으로 상량된 중화전을 중심으로 즉조당, 석어당, 함녕전, 대안문을 비롯하여 중명전, 선원전, 사성당, 영성문, 혼전, 양화당, 수학원, 돈덕전 등 많은 건물들이 들어 서 있었다(김정동, 2004: 44). 이렇듯 경운궁 안을 딱 채운 전각들은 국가의 중흥을 위하여 황실의 존엄성을 국내외에 과시하고자 한 의도를 보여주는 물리적 장치로 작용하였다.

2) 경운궁의 소실과 재건

중화전의 영건으로 경복궁, 창덕궁에 비길 만한 궁궐의 면면을 대강 갖추었으나, 1904년(광무 8년) 4월 14일 발생한 큰 화재로 그 동안 수리하고 신축하였던 주요 건물들이 거의 다 타 버렸다. 이 후 중건되기 시작하여 1906년 5월에 대부분 중건되었다(김정동, 2004: 97). 화재가 날 당시는 대한제국을 둘러싼



그림 2. 1904년의 큰 화재
가정당·돈덕전·구성헌만 겨우 남아 있다
(자료: <http://www.cyworld.com/angayo/3082674>)

국내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는데,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고종 황제에 의해 국외중립이 선언되었으나, 일본에 의해 목살되고 러일전쟁 발발한 직후의 일이었다. 이렇듯 국내외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나라 안팎으로 큰 공역을 일으킬 형편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경운궁 중건에 대해 단호한 결의를 밝히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화재가 난 다음날 바로 경운궁 중건도감을 설치하여 1~2년 사이에 걸쳐 덕수궁을 중건하였다. 국내외의 긴박한 주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중화전 공사는 1905년 1월 추운 겨울날에 진행되어 공사를 독촉하였고, 중화전의 재건은 1901년 중건할 때와는 달리 어려운 나라 형편을 고려하여 중층에서 단층으로 상량하였다(김순일, 1999: 38-45).

대외적으로 침략적인 영향이 강화되고 있던 시대적 상황은 재건 당시 건립되었던 양옥들에 반영되어 있다. 궁궐 내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 건축물인 석조전을 비롯하여 정관헌, 중명전, 돈덕전, 구성헌, 환벽정 등 여섯 동의 양옥이 중건되었는데, 경운궁에 이렇게 서양식 건물이 많았던 것은 대한제국과 외국,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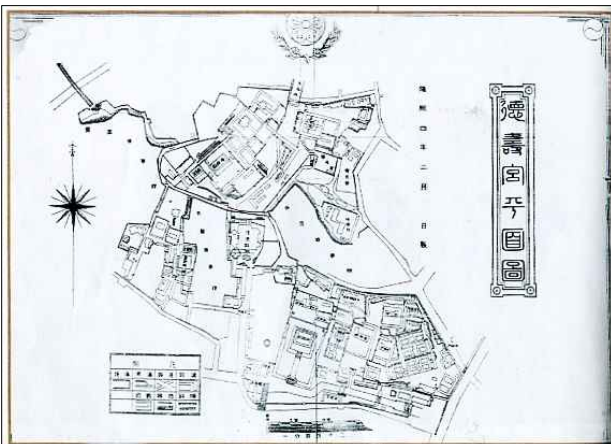


그림 3. 융희 4년(1910.2)의 '덕수궁평면도'
<이 도면에서 궁궐 한가운데는 영국 영사관, 미국 영사관, 러시아 영사관이 차지하고 있고, 그 주위에 양옥들이 배치되어 있다(자료: 오다쇼고(小田省吾), 1988, 안창모, 2009: 132에서 재인용)>.

히 서양 제국과의 관계가 긴밀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특히 서양식 건물들이 대부분 고종이 외국사신을 접견하는 데 자주 사용했다는 사실은 서양 세력의 힘을 이용해 보려는 고종의 외교적 몸짓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궁궐 내에 존재하는 양옥들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데, 석조전의 경우 비록 외국인에 의해 설계되었으나 우리 정부 주관 아래 우리 예산으로 처음 시도된 진정한 의미의 근대 여명기적 건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외세의 침탈적 성격이 강하며 본래 있던 궁궐의 질서를 깨뜨렸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엇갈린다(이은미, 1994: 57-58). 당시 경운궁 공사를 주관 하였던 중화전 영건도감과 경운궁 중건도감의 공사 기록에 석조전에 관한 기사가 전연 없고, 같은 주체에 의해 경운궁의 다른 전각과 같이 계획되고 시공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주체적으로 시도된 진정한 근대건축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아직 덕수궁의 양옥들에 관한 계획과 설계 및 시공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료검토가 필요하다(김순일, 1999: 73-78).

즉, 이 시기 덕수궁은 덕수궁의 이름으로 근대 한국사상 최초의 황제인 고종(광무황제)이 10년간 정사를 폈던 곳이자, 1907년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난 고종이 1919년 2월까지 여생을 마친 곳으로 이 시기 최고의 권위와 의미가 부여된다. 이 시기 덕수궁 경관변화의 주체는 고종이었고, 실제 사용자도 고종을 비롯한 왕실이었다. 물론 주변에는 1880년대 이래 미국 공사관, 영국공사관, 러시아공사관 등이 위치해 있었고, 열국 외교관들은 시시로 덕수궁을 오가며 자국과 한국 사이에서 외교업무를 수행하였으니, 근대 정치외교무대의 중심으로서 또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김중헌, 2004: 116).

2. 일제치하의 축소되고 왜곡된 왕조의 상징 공간

일제시대에 접어들면서 덕수궁 내에서는 당시의 권력주체자인 식민정부 주도로 의도화된 문화 경관의 상징물 전쟁⁴⁾이 일어나게 된다(송희은, 2007: 47). 상징물 전쟁은 크게 정복된 세력의 경관을 없애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념비적 경관을 만드는 방식, 구세력이 자연화한 문화경관을 새로운 세력이 훼손하고 다시 그것을 압도하는 경관을 새로 건설하여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구세력을 모욕하고,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방식, 새로운 통치 세력이 피정복 세력에 대하여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껴서 피정복 세력의 기념비를 세워주는 방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윤홍기, 2001: 287-288). 덕수궁은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이 혼재하여 나타나게 된다. 먼저 물리적으로 덕수궁을 해체한 후 그 공간을 세속화 시키고자 대중을 위한 경관을 삽입하고, 그 안에서도 조선과 일본의 각각의 문화를 함께 전시함으로써 그들의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1) 제한된 권력, 신성의 파괴

조선 왕조가 유산으로 남긴 5개의 궁궐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덕수궁) - 가운데 병합 이후에도 왕궁으로 명맥이나마 유지한 궁궐은 덕수궁과 창덕궁 2개의 궁이었다. 이들 궁궐은 경성의 도심부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는데 이는 사라져 버린 조선 왕조(및 대한제국)의 현존하는 왕의 거처가 갖는 정치적 앞서 이야기한 상징성 때문이었다. 고종과 순종의 인산일을 전후하여 발발한 3.1운동과 6.10만세운동이 잘 보여주듯이, 아직도 왕조의 향수를 추억하는 대중들에게 있어서 왕의 존재는 강력한 정치적 동원의 구심력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늘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일늑약 이후에도 총독부 권력은 덕수궁과 창덕궁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일종의 정치적 불모로서, 정치적 안전판으로 국왕에 대한 예를 다하는듯한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왕과 그 주변 인물들의 동태에 대한 면밀한 감시의 시설과 통제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김백영, 2008: 58-62).

1907년 6월 고종이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위중, 이준을 특사로 파견한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일제는 고종에게 황제위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였다. 고종은 최후의 수단으로 황태자에게 대리청정을 하겠다는 조서를 내렸으나, 일제와 이완용 등 친일파는 대리청정을 선위로 바꾸어 발표해 버렸다. 하는 수 없이 고종은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순종이 황제가 되었다. 순종이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일제는 순종이 고종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고종은 덕수궁에 머물게 하고 순종은 창덕궁으로 임어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물러난 황제 고종에게 덕수라는 궁호를 붙였다. 덕수는 조선 그 초 정종에게 양위하고 물러난 태조에게 올렸던 궁호였다. 말하자면 덕수라는 이름은 물러난 왕에게 덕을 누리며 오래 사시라는 뜻으로 올리는 일종의 보통명사였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덕수궁이라는 이름은 궁궐의 명칭이 아니라 고종에게 강요된 이름이었던 것이다(김중현, 2004: 113).

1919년 고종이 승하한 뒤 덕수궁은 식민 통치자들에 의해 이름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형태까지도 축소화되기 시작한다. 1919년 고종의 붕어와 더불어 선원전 일곽은 우선적으로 일본에 의해 훼손 당했는데(김정동, 2004: 51; 김순일, 1989: 115), 선원전은 전통유교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신성공간으로써 황제직계 조상의 초상화를 모신 전각으로 혹은 선대 황후의 신성한 혼전 혹은 빈전으로 기능하였던 상징공간이다. 고종 붕어 1주기가 되자마자 창덕궁에 신선원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어진이 옮겨졌으며, 덕수궁 선원전 구역의 모든 전각들이 해체되어 옮겨졌다. 1920년 4월에는 선원전 구역의 부지가 조선은행, 식산은행, 경성일보사에 매각되어 그 해 5월에 이르러 선원전 구역의 실제적 흔적이 보이지 않게 된다. 1919년 고종 승하와 더불어 해체된 영성문 대궐 구역은 1920년 선원전 터 바로 뒤에 해인가 중앙포교소가 7,800여 평으로 들어섰다가 1925년까지 존

재하였다. 이 지역은 1934년 조선저축은행이 인수하여 사택을 짓게 된다. 1922년 의효전 자리에는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1935년 덕수공립보통학교로 개칭, 지금의 덕수 초등학교)가 들어서게 되고, 흥덕전, 흥복전 자리에는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가 자리 잡게 된다. 이는 왕권을 상징했던 각 지방의 객사(客舍)에 초등학교를 세워 왕권의 상징성을 해체시켜 나갔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방식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겠다. 즉, 당시 한국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던 객사 등을 해체시키면서 왕권을 해체시켜 나갔다(김중현, 2004: 113). 1933년에는 영복당, 수인당 등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되었고, 그 재목은 공개 입찰에 부쳐 방매되었다.

또한 1911년 이왕직의 사무분장규정이 공포되면서 덕수궁 석조전과 돈덕전을 제외한 모든 궁궐 및 청사와 부속건물들을 관장하면서 조선총독부가 덕수궁 부지의 일부를 도로개수 명목으로 접수하여 덕수궁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1914년 태평로 공사를 할 때는 덕수궁 동북쪽 공장에 위치한 포덕문이 당시 경성부청의 맞은편, 대한문 북쪽으로 이전되고, 인근에 있던 평장문도 함께 이전되었다. 1920년 정동지역을 남북으로 관통도로를 내어 덕수궁부지는 둘로 갈라지면서 선원전구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같은 해 경복궁 근정전 앞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완공되어 이전하면서 이와 서울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가장 중시되었고, 이로 인해 태평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고, 1927년 태평로 확장 공사가 시작된다. 또한 이미 1914년에 덕수궁의 동편 구역이 축소되었지만, 1927년에 다시 덕수궁의 동편 구역이 대폭 축소되었다. 태평로에 근접한 덕수궁 30칸(약 54m)이 매각되고 대한문이 뒤로 물러 옮겨졌으며 그 안에 있던 전각과 땅이 매각되었다(이은미, 2008: 24). 궁궐의 서쪽과 전진 기지의 일부를 통하여 서대문 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었으며, 1938년에 작성된 이철원의 「왕궁사」의 덕수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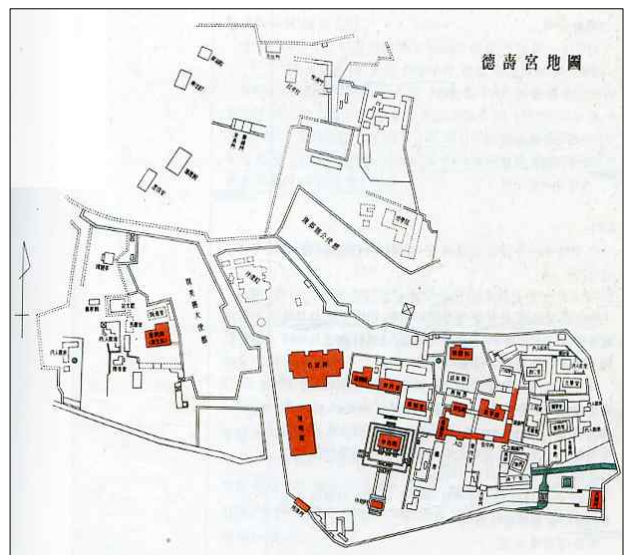


그림 4. 1938년 경 덕수궁 지도
(자료: 이철원, 1954)

지도에 의하면 축소된 덕수궁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일제의 덕수궁 훼손은 비단 건축물뿐만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궁궐담장도 조선식이라며 헐어내고 석조전 앞에 있던 분수 대마저 뽑아냈다. 원래 덕수궁의 담장은 전통식으로 돌담장이었으나 일제는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시키기 위해 왕궁의 외관인 담장마저 헐어 버리고 콘크리트 담장을 설치하였다. 분수대는 석조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인 1937년에 세워진 것이다. 초창기에는 재질이 청동제였으나 일제 말기에 일제는 이를 포탄 제조용으로 쓰기 위해 철거했었다(정운현, 1995: 282-283).

2) 특권공간의 세속적 전향

1931년 이왕직은 덕수궁의 1만 평을 ‘중앙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다. 당시 덕수궁의 부지는 약 2만 1백 평이었는데, 절반 정도의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앙공원계획에 따라 1932년 4월부터 덕수궁 내 전각의 수리와 해체, 정원의 수축이 진행되었고, 일본 동북산 벚나무를 심었다. 돈덕전이 철거된 자리에는 아동운동장을 만들었고, 휴게소 2개와 매점 등 기타 시설도 설치했다. 1930년 당시 덕수궁에 남아있던 건물은 당(堂)이 7개, 전(殿)이 6개, 헌(軒)이 5개로 18개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최병선, 2008: 27-28). 또한 석조전은 일본 고관들의 여관으로 쓰이다가 서울에 호텔이 늘어나 극장으로 사용되었고 1922년부터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이후 시중에 극장이 늘어나자 미술품(회화, 공예품)을 전시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왕가미술관이 되었다. 미술관은 1933년 10월 개관되어 주로 일본 작가의 근대미술품을 수집 진열하였다(김정동, 2004: 234-235). 18개 건물 중에서 현재 덕수궁에 남아있는 석조전, 준명당, 즉조당, 석어당, 정관헌, 덕홍전, 함녕전, 중명정의 8개 건물을 제외한 10개 건물이 공원화 작업으로 일시에 훼손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남아있는 연못은 1933년 해체된 영복당과 수인당의 전각이 있던 곳의 일부이다(김순일, 1999: 89).

1913년 봄 경성일보의 사장 요시노가 벚나무 500주를 기증하여 덕수궁에 심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궁궐 공원화 작업의 준비였다. 일본인들은 1909년 창경궁을 동물원과 식물원을 개설한 공원으로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개방했었고(김순일, 1999: 86-87), 그 뒤 덕수궁도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된다. 1930년 경성부 도시계획공원표에 의하면 경복궁과 창경궁과 함께 덕수궁 54,500m²가 근린·아동공원·운동경기장으로 계획되었고, 이는 가장 신성시하는 왕실소유토지를 개방하여 식민지 조선의 한 단계 낮은 지위를 천명하는데 근본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식민지통치 초기에 명백해진 박물관의 개원은 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그때까지 유지되었던 중세적 의식체제의 변혁을 시도한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백성도 왕 소유의 토지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 주어 신분계급의 완전한 해체를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강신용, 2004: 203).

석조전 앞의 서양식 정원은 분수와 함께 1938년에 조성된 것



그림 5. 덕수궁미술관 앞에 분수신설 (자료: 조선일보, 1938년 9월 27일자)

으로 보인다. 1938년 9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은 분수 앞에서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유럽의 정원양식인 좌우 대칭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평지보다 낮은 위치에 만들어졌으며, 방형과 반원형을 조합한 모양의 못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수는 전통 정원의 구성요소와는 거리가 있다. 우리 선조들은 물이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고이면 스스로 넘쳐서 또 아래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로 물이 치솟는 방식인 분수는 반연연적인 경관이라 하였다(최준식, 2000: 48). 또한 연못 주변은 잔디와 정형적으로 다듬어진 관목이 식재되어 고유한 궁궐의 정원양식과 이질적인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듯 공원화작업을 통해 1933년 10월 1일부터는 궁궐이 공원으로 만들어져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으며 석조전은 일본인 미술품의 진열 전시장으로 사용되었다. 1936년 8월부터 1937년 11월까지 1,104평 규모로 또 하나의 다른 2층 석조 건물이 세워져 이왕직박물관으로 사용되며 창경궁 박물관의 미술품, 고고학 자료 등이 옮겨져 수장되었다. 이미 1933년 10월 1일부터 덕수궁을 공개하고 석조전에 근대 일본 미술품을 진열해 놓았기 때문에, 조선 고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 신관을 건축하여 신구(新舊) 미술품을 한 장소에 진열하고 관람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채택되었다. 이는 일본이 고미술품이 아닌 근대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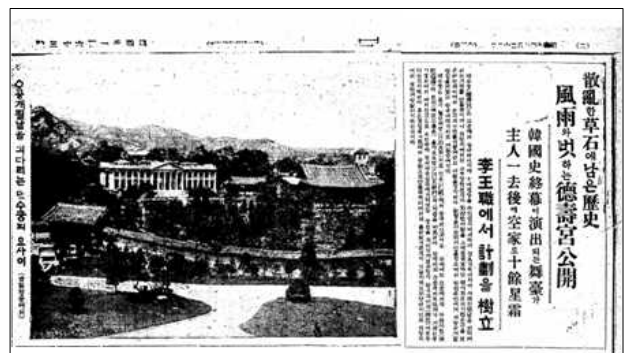


그림 6. 공개될 날을 기다리는 덕수궁의 묘사 (자료: 동아일보, 1932년 7월 22일자)

술품을 조선의 고미술품과 나란히 전시함으로써 일본이 조선보다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각인시키고자 했던 의도를 읽을 수 있다(송희은, 2007: 56).

이러한 의도된 경관 변화로 인해 시민들은 덕수궁을 더 이상 공궐이 아닌, 공공장소 혹은 공원으로 인식하였고,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 시기 덕수궁은 일제의 근대 체계 모니의 실현 수단이지 식민지 근대성이 발현된 하이브리드 장소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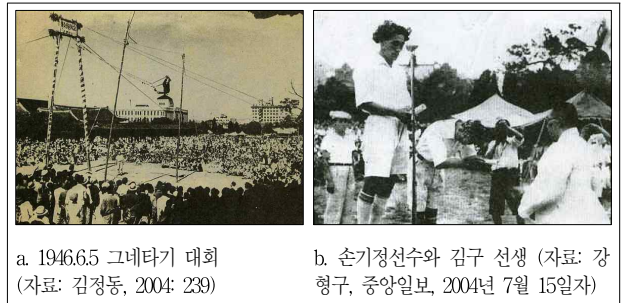
3. 광복 이후 장소정체성의 혼재

1) 행사 및 근대 정치외교의 장 - 각종 전람회 및 미소공동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광복을 맞으면서 덕수궁 내의 석조전은 미술관의 성격을 유지하되 전시작품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1945년 10월 해방 기념 미술전람회가 개최되었다. 1954년 6월에는 석조전을 국립박물관으로 처음 사용하였으며, 1955년에는 6.25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석조전 건물의 일부를 육군 공병단에서 수리·복원하였다. 수리·복원한 석조전 건물에서 1957년 10월 15일 산업전람회를, 1958년 10월 22일 과학전람회를 개최하여 전시적 성격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

또한 덕수궁은 정치 외교적 장이기도 했다⁶⁾. 석조전은 늘 그 중심에 있었다. 46년 1월에는 석조전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되었고, 1948년부터 1950년 6.25가 발발할 때까지 UN한국위원단에서 석조전을 사용하였다. 이는 근대건축물의 상징인 석조전에 미군이 자리하면서 일본을 대신하여 미국계 국주의자들이 일제가 쓰던 관공서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미국의 통치와 지배를 강화하려는 논리가 거저에 깔려 있었다. 동시에 덕수궁은 신탁통치에 반대하며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항한 시민들의 정치적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다.

석조전이 정치·외교적 장이자 전시관으로서 기능했다면, 전반적으로 덕수궁은 각종 행사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46년 6월 5일에는 그네타기 대회를 개최하여 무려 3천 명의 구경꾼이 모여들었다고 하며, 같은 해 8월 9일에는 독일 베를린 마라톤에



a. 1946.6.5 그네타기 대회 (자료: 김정동, 2004: 239)
b. 손기정선수와 김구 선생 (자료: 강형구, 중앙일보, 2004년 7월 15일자)

그림 8. 각종 행사의 장소로 활용되는 덕수궁

서 우수한 손기정 선수의 시상식 재현행사가 개최된다(김정동, 2004: 238,240).

2) 외삽된 경관 - 세종대왕 동상의 건립과 스케이트장의 개설 이후 6.25전쟁을 거치고 난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60년 11월 문교부내에 문화재보존위원회가 설립되어 1961년에는 고적과 사찰 등을 향연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또한 1962년 1월에는 일제시대부터 내려왔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폐지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던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러 경복궁의 경회루에는 당시 성행했던 스케이트장 개방이 금지되었다(이영일, 2007: 114-115). 그러나 60~70년대 공설운동장이나 궁터에 물을 가둬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을 정도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았던 탓에 1961년 1월 구 황실 재산사무총국은 창경원 춘당지와 덕수궁 연못에 스케이트장을 개설하였다(오휘영, 1982: 3).

그림 9는 1968년 태평로를 확장하고 덕수궁 돌담을 쌓기 전 시청 쪽에서 덕수궁을 바라보며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당시 서울 도심에서 빈터에 얼음을 얼려 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던 곳은 덕수궁과 창경궁뿐이었다⁷⁾.

또한 한동안 광화문 앞 세종로 중앙에 서 있는 이순신장군의 동상이 유신정권의 정치적 정당화의 잔재이며, 세종로 보행로 확장계획과 함께 이전하려는 논의와 함께 원래 세종로



a. 1947.6.23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자료: http://blog.naver.com/ljyt1128)
b. 1947.6.23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신탁통치 반대 데모(자료: 김정동, 2004: 240)

그림 7. 덕수궁 내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그림 9. 덕수궁스케이트장 (출처: 한겨레신문, 2005년 5월 3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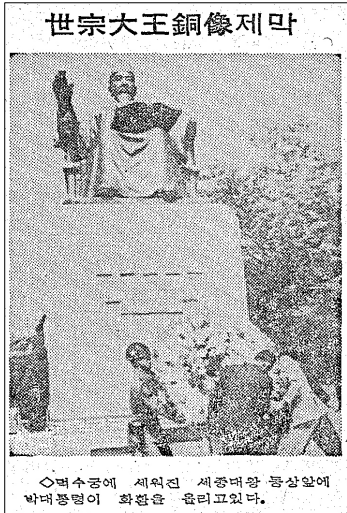


그림 10. 세종대왕동상제막
(출처: 조선일보, 1978년 5월 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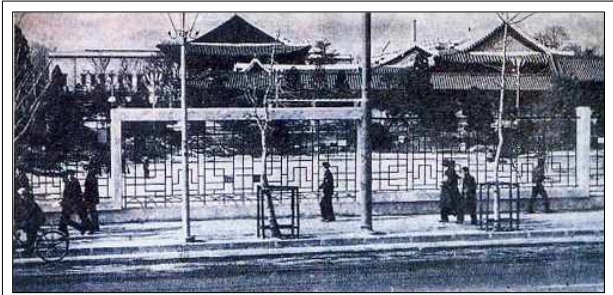
에 세우기로 했다가 덕수궁으로 옮겨진 세종대왕동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회자되었다(YTN, 2004년 2월 18일자). 세종대왕 동상은 1968년 4월에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와 서울 신문사 공동으로 진행된 애국선열 조상건립 운동사업에 따라 중화전 동편에 건립되었다. 총 15기의 동상 중 하나로서 원래 광화문 네거리에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리에 이순신장군 동상의 건립을 추진하면서 세종대왕동상은 역사적으로 별로 관련이 없는 덕수궁으로 옮겨졌다(한겨레신문, 2008년 2월 15일자).

이는 기본적으로 당시의 권력주체자라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입장에서 창경궁과 덕수궁의 상징성이 약하다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이미 이 시기에는 근대 문화가 자연화 되어, 궁궐에 대한 상징성이 장소독해자라고 볼 수 있는 시민들에게 많이 희석된 상태에서 공원으로로서의 장소정체성이 자리 잡아감을 알 수 있다.

3) 전통의 재현과 창조의 영역

1959년 7월에는 남대문경찰서 태평로파출소가 덕수궁 동북담 모서리에 신축되었으며, 1961년 10월 정식관리기구인 덕수궁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관리를 전담하게 되었다. 1962년 7월 덕수궁을 사적 제 124호로 지정하였다. 1961년 12월에 덕수궁 돌담을 해체하고 철책을 들렀고, 1968년에 다시 돌담으로 복원시키면서 16m를 안쪽으로 옮겼다. 이 때 연못이 반감되고 수중교가 철거되었다(오희영, 1982: 3). 이로써 대한문은 담과 떨어져 도로에 고립되었다가 일 년 반 만에 안으로 22m 이격하여 1971년 1월 22일 준공하였다. 포덕문은 1914년 태평로 공사 시 북쪽으로 이격되었는데, 1960년대 태평로 확장 공사 시에 덕수궁 동편 구역이 축소되면서 덕수궁 서편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은미, 1994: 29).

이후 1973년부터 1986년까지 석조전 서관은 국립현대미술



a: 1967년 철책 투시형으로 변형된 덕수궁 돌담장
(자료: 김정동, 2004: 241)



b: 덕수궁 전면 도로가 확장되며 1970년대 대한문은 섬처럼 남아있었음
(자료: 김정동, 2004: 242)

그림 11. 광복 후에서 계속 바뀌는 덕수궁 경계

관으로 사용되었으며, 1986년 8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다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이 개관하여 덕수궁 돌담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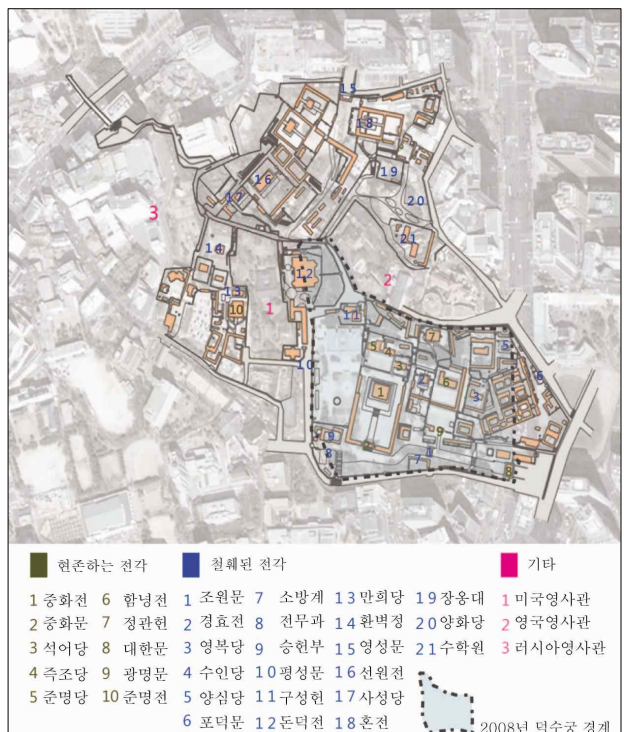


그림 12. 1910년과 2008년 덕수궁의 영역 변화

적으로 일본의 철저한 계획아래 훼손 당한다. 일제 강점기에 덕수궁은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공원으로 격하되었다. 이는 구 세력이 자연화한 문화경관을 새로운 통치 세력이 훼손하고, 그것을 압도하는 경관을 새로 건설하여 구세력을 모욕하고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궁궐은 전체적으로 빛나 무가 가득한 왜색 짙은 공원이 되었고, 일본 미술을 전시하는 미술관도 설립된다. 이러한 의도된 경관 변화로 인해 시민들은 덕수궁을 더 이상 궁궐이 아닌, 공공장소 혹은 공원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 공공공간으로 이용하게 된다. 당시 덕수궁은 외생적 근대성의 침탈공간이자 하이브리드 장소가 된다.

광복 이후 현대에 와서 덕수궁의 장소정체성은 좀 더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중국에서 환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정부처, 좌우합작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등이 개최되었다. 요컨대 대한민국의 건국의 요람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각종 문화예술작품의 전시회와 공연 장소로서, 서울 시민의 다정한 안식처이자, 나아가 전통시대 황실문화의 재현을 위한 의식의 장이기도 하다. 즉,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그 장소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이 권력주체이자 장소독해자라고 볼 수 있다.

덕수궁은 대한제국 시기의 왕조의 상징영역에서 일제시대를 거치며 급격하게 혼성적인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하나, 광복 이후부터 장소정체성 혼란의 양상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하여 덕수궁의 그 장소적 상징성을 회복하고자 2004년부터 덕수궁 복원 사업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덕수궁의 복원사업은 크게 물리적인 복원과 의례의 재현을 통한 복원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덕수궁의 역할과 관련하여 역사학을 비롯하여 여러 학계 내에서 식민지의 잔재로서만 인식한 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덕수궁을 창건 당시부터 대한제국시기, 일제 강점기, 광복 이후로 나누어 분류하고, 덕수궁의 장소성과 의미의 변화를 렐프(Relp)가 구분한 장소정체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물리적 환경, 사람들의 활동, 의미에 착안해 파악하였다. 또한 물리적 환경은 덕수궁이 덕수궁에서 현재 덕수궁으로 변화하기까지의 형태 변화로, 사람들의 활동은 던컨(Duncan)이 논의한 권력주체와 장소독해자로 나누고, 시기별 의미를 도출한 후 각각의 장소정체성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덕수궁 내 혼재되어 있는 장소성을 시기별로 구분하고자 하였고, 그 시기별로 덕수궁의 공간변화를 기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궁궐들 중 연구사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앞으로 축적될 덕수궁과 관련한 또 다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그 1차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자는 현재의 덕수궁이 권력주체자의 의도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이전에 장소독해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어느 부분 긍정적인 점을 인정한다. 이는 어떤 장소를 연구하는 개인의 정보 판단으로 인해 내려지는 여러 장소의 이데올로기적 해석에 충분한 장소독해자와의 대화가 필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덕수궁은 임진왜란이나 청일전쟁과 같은 조선 왕조의 변란 때마다 군주가 잠시 이곳에 머물며 난리를 극복한 중요한 역사의 무대였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한국사상 최초의 황제국인 대한제국의 시련과 희망이 교차한 황궁이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덕수궁은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달리 영역 자체가 임진왜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 변해왔고 덕수궁 주변과의 끊임없이 영역이 변하면서 시대적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김종현, 2004: 116) 현재의 덕수궁의 외관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도 훨씬 더 여러 장소성들이 혼재된 곳이다. 때문에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한 덕수궁 복원 사업은 다른 어떤 궁들의 복원보다도 어려운 작업이며, 정치적 이권을 넘어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이강근, 2005: 208). 이러한 연구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덕수궁 복원 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형적 복원의 집착이 아닌, 덕수궁 장소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권력주체자, 즉, 권력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장소독해자의 입장에서 장소의 복원 및 창조 논의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 주 1) 2003년 중구 정동 일대의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이은미, 2008: 159) 이를 바탕으로 2005년에 2004년부터 2013년을 목표로 덕수궁을 종합 복원·정비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문헌조사, 기본 및 단계별 계획 수립을 진행하였고, 이후 2007년 덕수궁 중명전 복원 만회당지와 덕수궁합영전 행각지(복측행각)에 관한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어 복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주 2) “삭막했던 도심에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 하이드파크와 같은 열린 공원이 생기게 된다. 재의 작고 특색 없는 서울광장도 분수와 스케이팅장, 몇몇의 축제 등으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제공하는데, 그 일곱 배나 되는 거대한 광장에 한국의 역사와 서울의 매력을 제공한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 주 3)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기본으로 하는 사료 조사 측면으로, 주로 조선 왕조실록, 궁궐지 등의 문헌사를 바탕으로 연혁과 변천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두 번째는 전통공간의 계획원리로 작용하는 사상을 토대로 궁궐의 입지를 해석하거나 배치특성과의 관련성을 해석하는 연구이다. 세 번째는 미술사적인 자료인 궁궐도와 각종 궁궐 관련 옛 그림 등을 통하여 회화사적인 특징을 살펴보기나 그림 속의 내용을 통하여 궁궐의 구성원리를 밝혀 보고자하는 연구들이다. 네 번째는 궁궐건축을 시공·기술사적인 접근으로 의례를 통한 재료구입과 공장조직에 관한 연구이다. 다섯 번째는 생활측면에서의 접근으로 궁궐에서의 생활과 반차도(班次圖) 등을 통한 생활공간이 쓰임에 관한 연구들이다. 여섯 번째는 공간의 시시각각 측면에서 외부공간과 형태의 중층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 주 4) 한 문화경관에 대해 어떤 장소독해자의 해석이 힘을 얻어 한 가지 해석만 남고, 다른 해석이 배제된 것을 자연화된 경관이라 하고 다른 장소독해자의 해석이 힘을 얻어 그 경관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때 자연화 뒤집기라 한다. 문화경관이 자연화와 자연화 뒤집기 현상이 한 문화 경관을 통해 반복하여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을 문화경관의 상징물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송희은, 2007: 47).

- 주 5) 덕수궁 홈페이지 참고 <http://www.deoksugung.go.kr/about/history03.asp#>
- 주 6) 이와 관련하여 김정동은 "남북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치적 장소로 변질되기도 했다. 미국과 소련의 각축장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기술한다(김정동, 2004: 240).
- 주 7) 한겨레신문, 2005년. 5월. 31일자 기사 재인용
- 주 8) 다음 그림은 덕수궁의 시대별 변천사를 나타내주는 도면으로서 김종현의 '덕수궁의 보존과 복원'의 114~116쪽에 실린 것을 참고하였으며, 이는 1910년에 발행된 것으로 알려진 오다의 『덕수궁사』에 실린 '덕수궁평면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그림 f, g는 연못과 분수가 있는 서양식정원의 형태를 덕수궁(김순일, 1999: 91)에 수록된 최근의 도면에서 추정하여 기존의 도면에 추가·수정된 것이다. 그림에 표현된 연못의 면적은 1961년 태평로가 조성된 이후의 것으로 당시 연못의 면적은 도면에 표현된 크기보다 약 2배 정도 컸다고 한다(오희영, 1982: 3).
- 주 9) 궁내의 전각인 선원전, 사성당, 흥복전, 흥덕전, 의효전 등이 황제 직계 조상의 초상화를 모신 전각으로, 혹은 선대 황후의 신성한 혼전 혹은 빈전으로 기능하였던 사실이 그것이다.

인용문헌

1. 강신용(2004).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서울: 대왕사.
2. 김백영(2008). 파괴와 복원의 정치학:식민지 경험과 역사적 장소의 재구성. 제 1회 AURI 인문학 포럼 발표자료.
3. 김순일(1999). 덕수궁(덕수궁). 서울: 대원사.
4. 김영자(1997). 조선왕국 이야기. 파주: 서문당.
5. 김정동(2004). 고종황제가 사랑한 저동과 덕수궁. 서울: 발언.
6. 김종현(2004). 덕수궁의 보존과 복원. 건축역사연구. 13(1): 111-117.
7. 도변천예, 이궁과정(1910). 조선명승기. 조선명승기 편찬소.
8. 박경룡(2005). 개화의 거리, 정동이야기. 중구문화. 9: 33-50.
9. 박승규(1995). 문화지리학의 최근 동향: 신문화지리학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7: 131-145.
10. 송희은(2007). 창경궁의 장소성과 상징성의 사회적 재구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안창모(2009). 덕수궁: 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 파주: 동녘.
12. 오희영(1982). 궁원의 보존과 사적공원화를 위한 연구: 덕수궁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17: 1-20.
13. 윤홍기(2001). 경복궁과 구조선 총독부 건물 경관을 둘러싼 상징물 전쟁. 공간과 사회. 15: 282-305.
14. 이강근(2005). 덕수궁 복원의 제문제. 건축역사연구. 14: 203-208.
15. 이민원(2003). 덕수궁. 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6. 이영일(2007). 경복궁의 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일제강점기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이은미(1994). 1910~1960년, 경복궁에서 덕수궁 사이의 가로와 가로변 건축물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이철원(1954). 왕궁사. 구황실재산사무총국.
19. 정운현(1995). 서울시내 일제 유산답사기. 서울: 한울(한울아카데미).
20. 중화전영건도감의례.
21. 진중현(2006). 도시경관. 도시해석. 서울: 푸른길. pp.317-336.
22. 최병선(2008). 덕수궁의 복원계획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최중덕(2003). 경복궁 복원의 의미. 건축역사연구. 35: 194-202.
24. 최준식(2000).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파주: 효형출판.
25. 홍순민(2000). 우리 궁궐 이야기. 파주: 청년사.
26. Anderson, K. and F. Gale(1992). Inventing Places: Studies in Cultural Geography. Australia: Longman Cheshire.
27. Dauncan, J. and N. Duncan(1988). (Re)reading the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 123-125.
28. Duncan, J. (1980). The superorganic in American cultural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0(2): 181-198.
29. Relph, E.(2002). Place and Placeless. Rutgers Univ. Press: 에드워드렐프.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심승희 옮김. 논형.
30. <http://www.cyworld.com/angayo/3082674>
31. <http://blog.naver.com/ljyt1128>
32. <http://www.deoksugung.go.kr>

원고접수: 2010년 5월 18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0년 6월 20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